

석

명절

가정예배



목 도

다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시 95:2-3)

찬 송

569장(통일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 항상 인도 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 도

가족 중에서

다 같이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하니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품은 비전’을 가족들과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6)

시편 23편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메시지는 영혼의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양이라는 뜻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굶주리고, 쫓겨 다니고, 배신당하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여전히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수많은 위협과 결핍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삶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실패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18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핍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말로 위로했을까요?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의 없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시작했던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무지로 인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결핍이 '영혼의 결핍'에서 온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잘못된 '욕망추구'를 하게 되어 나와 주변 사람과 사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고귀한 가치'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고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고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내면은 고귀한 가치로 가득 차게 되고, 내면을 채우고자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고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기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괜찮은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임마누엘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 나갈 때,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